'탁발' 관광상품 전락… "불교전통 훼손"

라오스 루앙프라방 관광객 몰리며 우려 높아

박영빈 객원기자

상좌부 불교국가인 라오스는 스님들의 탁발로 아침이 시작된다. 그러나 이 탁발이 관광지의 특별한 볼거리처럼 소개되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고 10월 2일 일본언론 '글로브 아사히'가 전했다.

도시 전체가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라오스의 옛 수도 루앙프라방. 매일 아침 5시면 도시 곳곳의 절에서 스님들이 탁발에 나선다. 일반적으로 한 절에서 20~30여 명의 스님들이 탁발에 나서는데, 절의 주지스님과 강사스님들을 앞세워 법랍에 따라 서서 발우를 들고 나가면 거리에 대기하던 신도들이 발우에 음식을 공양 올린다.

그러나 고요한 탁발행렬이 관광객의 증가로 어지러워지고 있다. 스님들의 행렬 동선에 맞춰 관광객들이 앉아서 관람할 수 있는 의자를 대여하거나, 탁발하는 스님들에게 공양을 올릴 수 있는 '공양물 세트'를 판매하는 상인들이 난립하고 있다.

'공양물 세트'는 대나무 바구니에 밥과 과자가 들어 있으며 보통 2만낍(한화 약 4천원) 정도에 판매되고 있다. 15년째 공양물 세트를 팔고 있다는 여성은 "원래는 밥과 다른 부식들을 함께 팔았다. 그러나 공양을 체험하려는 관광객들이 늘면서 밥과 과자만 판매한다. 부식은 신자들이 직접 절에 공양을 올린다"고 전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공양을 올리다보니 버려지는 음식마저 생겨나고 있다. 탁발에 참가한 한 현지 신자는 "이곳의 스님들은 하루에 한 끼만 드시니 많은 양이 필요하지 않다. 그러나 관광객이 너도나도 공양 올리다 보니 버려지는 음식들이 생기곤 한다. 최근 스님들도 이를 알고, 탁발이 끝나고 지나친 양은 노숙자 등에게 다시 보시하시곤 한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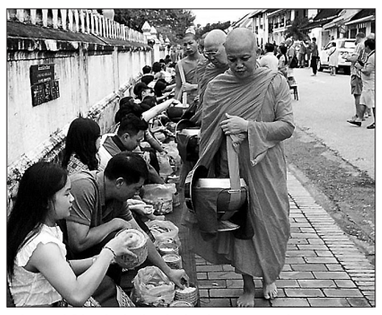
해외자본 호텔 · 식당 급증

관광용 '공양물' 까지 판매돼

물가상승 따른 현지인 이탈

긍정보다 부정적 여론 더 커

관광객들의 지나친 행동도 문제가 되고 있다. 탁발행렬을 따라 이동하며 사진과 영상을 촬영하며 경로를 방해하는 것은 물론, 탁발하는 스님을 모델로 포즈를 강요하는 등의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 심지어는 탁발체험 투어도 생겨 우려를 낳고 있다. 현지 관광국에서는 탁발 행렬 시에 스님에 대한 존중과 올바른 예절을 지켜달라는 입간판을 세우고 홍보에 나서고 있다.



이른 아침 탁발에 나선 라오스 스님들. 사진출처=아사히 글로브



정부가 세워놓은 탁발 시 관광객 주의사항을 담은 입간판.

가장 문제점은 공양을 올리는 라오스 현지 신자들이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다. 1995년 루앙프라방이 세계문화유산 지정 후 관광객들이 급증했다. 오래된 사찰과 민가가 서있던 길거리에 호텔과 레스토랑, 기념품점 등이 들어서면서 물가가 대폭 상승했다.

정부에서 문화재 보호를 위해 제한을 가하고 있지만, 도시 중심부에는 이미 호텔과 이동식 식당 등이 난립, 최근에는 중국과 베트남 등의 해외자본이 유입되면서 대규모 공사까지 진행되고 있다. 결국 마을에 살던 주민들이 교외로 대거 이주하는 공동화 현상까지 일어났다. 주민들이 교외로 이동함에 따라 기존의 사찰들에서 진행하는 탁발에도 차질이 생기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관광객들의 탁발공양이 공동화로 줄어든 라오스 현지인들을 대신한다. 경제적인 효과도 크다"며 현재의 상황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많은 현지인들은 "관광객이 늘어나면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던 모습과 자연환경이 파괴되고 있다. 경제효과도 세계문화유산 지구에 한정된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26년 만에 모인 천수관음 1,001구

日 산쥬산겐도, 보수 완료기념 특별공개

등신대의 천수관음상으로 유명한 교토의 '산쥬산겐도(三十三間堂)'의 천수관음상 1,001구가 26년 만에 모두 모인다. 10월 5일 '글로벌 부디스트 도어' '재팬 타임즈' '교토신문' 등은 이 특별한 소식을 일제히 보도했다.

교토 히가시야마(東山)지구에 소재한 천태종 사찰인 산쥬산겐도는 렌게오인(蓮華王院)의 본당으로 건물이 33칸으로 이루어진 데서 유래한다. 관세음보살의 33응신에 맞추어 건물을 짓고 1,001분의 등신대 목조천수관음상을 모신 것으로 유명한 일본의 고찰이다.

모셔진 천수관음상들은 학술조사를 통해 크게 세 시대, 300년에 걸쳐 조금씩 조성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12세기경에 조성된 불상들은 당시 최고의 조각가 단케이(1173~1236)가 만년에 조성했다는 명문이 남아있어 그 가치가 더욱 크다.

그러나 800년의 세월 동안 목조불상들은 시대적, 환경적 이유로 온전하게 보전되지 못했다. 하지만 지난 1973년 불상과 법당의 보수작업을 시작해 지난 10월 3일 45년 만에 법당과 1,001분의 불상을 모두 수리했다. 이 작업에는 총 9,200만엔(한화 약 9억 원)이 소요됐다.

산쥬산겐도 측은 "불상이 수리되기 전과는 완전히 분위기가 달라졌다"며 오랜 기간 보수에 공을 들인 만큼 앞으로 더 완벽히 불상들을 모시겠다고 전했다.

산쥬산겐도는 모든 보수가 완료된 것을 기념해 도쿄와 나라, 교토박물관에 위탁 전시중인 천수관음상 5구를 일시 반환, 오는 11월 26일까지 1,001구의 불상을 모두 한자리에 모시고 대중에 공개하기로 했다. 26년 전에 봉행된 대법회 이후 처음 공개되는 자리다.

산쥬산겐도는 이번 공개에 맞춰 불상을 잘 볼 수 있도록 슈운단(秋雲壇)이라는 특별 단상을 마련했다. 높이 약 1m남짓의 단상으로 평소에 보이지 않는 뒤쪽의 천수관음상까지 모두 친견할 수 있다.

박영빈 객원기자



수리를 마친 마지막 불상을 모시는 산쥬산겐도. 사진출처=아사히 디지털

승려 남편과 함께한 日생활 17년

알래스카 출신 프란즈, 〈먼지와 물의 해〉 발간

이방인으로서의 삶 비롯해

내면의 힘 발견한 이야기도

승려인 남편과 함께 일본에서 17년간 생활한 푸른 눈의 여성 트래시 프란즈(44 · 사진)가 최근 회고록 〈먼지와 물의 해:일본에서 선종 불교 스님 아내의 저널〉(Dirt and difficulty: Life as the wife of a Buddhist monk)를 발간했다. 승려 아내로서의 삶과 궁지에 갇힌 사마귀, 승복 위 쌀알 크기의 바늘땀, 사랑하는 반려묘의 뼈가 들어 있는 항아리와 같은 사소하면서도 지나치기 쉬운 자신의 이야기를 담았다.

프란즈는 9월 29일 재팬타임즈와 인터뷰에서 유년시절부터 깊게 관찰하는 습관이 있다고 말한다. 그는 "알래스카에서 자란 어린 때부터 나는 자주 혼자 있었고 혼자 외출했다. 마음속으로 많은 시간을 보냈다. 늘 광야를 방황하고 있었다"고 회고했다.

프란즈의 부모님은 그녀가 어렸을 때 이혼했다. 어머니는 재혼했지만 또 이혼했다. 계부 중 한 명이었던 프레드는 그녀에게 특히 잔혹했다고. 이런 탓인지 프란즈의 첫 번째 결혼 생활도 이혼으로 끝났다.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나는 내가 계부들 중 한 명과 같은 사람과, 또는 그들을 모두 섞어 놓은 사람과 결혼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항상 휩싸여 있었다. 사실 이것은 사랑을 이해하는 내 유일한 방법이었고, 나는 그것(사랑)이 나를 파괴할 때까지 또 다시 반복할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

그러다 개럿(Garrett)을 만났다. 현재 코운(Koun)이란 이름으로 바꾼 개럿과의 첫 만남은 그저 친구였다. 하지만 그가 출가하기로 결심하고 일본으로 떠날 때 그녀는 그와 동행하기로 결정했다.

일본에서 2년을 산 후 그들은 결혼하기 위해 미국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시애틀에서 열 달을 살고, 그들은 다시 일본으로 돌아갔다. 코운은 쿠마모토현 사카모리에 위치한 600년 된 소토(Soto) 선종 사찰에서 1년 동안 수행했고, 프란즈는 소케이가쿠인 대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쳤다. 그러면서 그녀는 도자기 만들기, 가라데, 명상 등 취미생활도 함께 했다.



사진출처=더재팬타임즈

"나는 이 모든 것들로부터 '하나'를 창조하고 싶었다."

그래서 쓴 것이 바로 이번 책이라고 프란즈는 설명한다. 책 〈먼지와 물의 해〉에서 그녀는 도자기 교실에서 나눈 다른 여성들과 우정, 물레질에서 실패와 성공, 학생들과 교류 등 사소한 일상 이야기를 다룬다. 코운과의 17년 동안 진중한 러브스토리뿐 아니라 일본에 살면서 자신의 내면의 힘을 발견한 여성으로서 이야기도 풀어낸다.

비록 그들의 '일본 생활기'는 2013년 캐나다로 이주한 후 끝이 났으나, 승려의 아내로서 그녀의 삶은 계속되고 있다. 코운은 할리팩스에서 불교커뮤니티를 이끌며 붓다다르마 잡지의 편집장으로 일한다. 그녀는 육아로 인해 도자기 빚기 또는 가라데와 같은 취미 생활은 하지 않지만 명상은 쉬지 않는다고 한다. "선종 승려로서 내 역할에 어떤 의무도 없다"고 말하는 그녀지만 늘 불교를 가까이 하고 있는 것.

특히 그녀는 코운 때문에 처음 일본에 갔지만, 마침내 그 나라에서 자아를 찾고 발전시킬 수 있었다고 한다. "일본에 사는 것은 이방인으로서 힘들지만 매혹적인 일이었다. 캐나다보다 일본에서 삶이 더 어려운 것이 사실이지만 난 그 삶을 사랑했다. 나는 일본인을 사랑하고 음식이 그립다."

박정현 객원기자

'흑인과 불교'를 말하다

아프리카계 美 불교지도자 15인 공개토론회

21일 뉴욕 유니온신학교

실시간 스트리밍 서비스

아프리카계 미국인 불교 지도자 15명이 뉴욕에서 공개 토론회를 갖는다.

미국 전역에서 모인 아프리카계 불교 지도자들은 오는 10월 21일 오후 2~4시(현지시간) 뉴욕시에 위치한 유니온신학교(Union Theological Seminary)에서 '미국의 흑인과 불자'를 주제로 다르마(dharma) 대화를 연다. 오늘날 미국 사회에서 흑인 불자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논의하는 것이 골자다.

불교 잡지 라이언스로어(Lion's roar)에 따르면, 이 공개 토론은 각각 다른 불교 전통으로 인해 유래된 흑인 아프리카 출신 불교지도자 간의 오래된 모임의 결론이다. 공개 토론회에는 묘케이 카이네 배렛, 쥴리스 수젠 해리스, 앤젤 교토 윌리엄스. 지나 샤프, 콘다 메이슨, 게일런 퍼거슨 등이 패널로 참석한다.

또한 이 행사는 라이언스로어 및 유니온신학교의 틱낫한 프로그램이 공동주최하며, 아서 비닝 데이비스 재단(Arthur Vining Davis Foundation) · 히메라 재단(Hemera Foundation) · 프리데릭렌즈 재단(Frederick P. Lenz Foundation) 등이 후원한다.

해당 토론회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간 스트리밍된다. 참가 신청 및 자세한 정보는 홈페이지(http://utsnyc.edu/event/black-buddhist-in-america) 참조.

박정현 객원기자

www.eunhae-sa.org

팔공산 은해사 창건 1209주년 개산대재

만등불사 · 프라이드경북음악회

부처님의 가피가 충만한 미타도량 은해사는 신라 헌덕왕 원년(서기809년) 혜철국사(惠哲國師)께서 창건하신지 1209주년이 되었습니다.

개산조 혜철국사와 역대조사 스님들의 선맥(禪脈)을 이어온 은해사 대법회에 교계 대덕 큰스님을 모시고 개산대재와 만등불사 대법회를 봉행합니다. 두루 동참하시어 무한한 선업과 공덕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불기 2562(2018)년 10월

개산대재 대법회

• 10월 20일 (토요일 음9.12)

오전 9시30분 개산조 혜철국사와 역대조사 다례재
11시 개산법요식
오후 2시 도·시민이 함께하는 프라이드경북음악회
6시 만등불사 점등식

• 동 참 금 : 만등불사 – 1인 1등 1만원

도·시민이 함께하는 프라이드경북음악회

• 일시 : 10월 20일 토요일 오후 2시
• 출연 : 금잔디, 윙크, 현숙, 박진도, 김상배, 한혜진, 강민, 박영진 명창, 규리, 댄스팀 외

■ 동대구역 지하도(오전9시)→하양→은해사
남부정류장(오전9시)→경산→하양→은해사
포항역(오전8시30분)→영천→은해사간 차량 운행합니다.

■ 문의 : 종무소 (054)335-3318 원주실 054)335-5220, 은해사 교구 각 말사
경북 영천시 청통면 청통로 951 은해사

대한불교조계종 제10교구본사 은해사 본·말사

